



즉시 배포용: 2020 년 8 월 11 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16 세 이상의 모든 자동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

Cuomo 주지사: "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안전띠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,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규를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지도력 아래 뉴욕이 안전띠 법을 통과한 최초의 주가 되었고, 이후 다른 주들도 그를 따라 안전띠 법을 통과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강력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"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16 세 이상의 자동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(S.4336/A.6163)에 서명했습니다. 현재 16 세 이상의 승객은 운전자 옆에 있는 조수석 앞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안전띠가 생명을 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규를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지도력 아래 뉴욕이 안전띠 법을 통과한 최초의 주가 되었고, 이후 다른 주들도 그를 따라 안전띠 법을 통과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강력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"

1984 년 Mario Cuomo 주지사 시절, 뉴욕은 안전띠 필수법을 통과한 최초의 주가 되었고, 같은 해에 뉴욕주 자동차부에 따르면 약 16%의 개인이 안전띠를 착용했습니다.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24 년이 지난 2008 년까지 규정 준수는 최대 89 퍼센트였습니다.

David Carlucci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"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부상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, 이러한 위험성은 차량의 앞쪽에 앉든 뒤쪽에 앉든 동일합니다. 이 법안에 서명하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뉴욕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 주신 AAA 를 포함한 지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"

Walter Mosley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안전띠는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자동차 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입증된 방법입니다. 이 법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

자동차 탑승자가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이 법안 통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."

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(Governor's Traffic Safety Committee)는 뉴욕에서 고속 도로 사망의 30%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라고 지적했습니다. 안전 전문가들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사용하면 충돌로 인한 사망 및 심각한 부상의 2/3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. 이 법안은 모든 자동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.

해당 신규 법안은 1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